

## 평신도학교 ‘공의회과정’ 2007년도 2학기 수강신청 안내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 문을 통해 세상에 나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고 선포할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이 사명에 부름받아 나아갈 우리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교회의 가르침을 바르게 듣고, 배우기 위해 평신도학교 ‘공의회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1. 시간표(매주 화요일 15주간 19:00~21:00)

일자	내 용	강 사	장 소
9/4	주교교령	조규만 주교	
9/11	동방교회 교령	박준양 신부	
9/18	비그리스도교 선언	박준양 신부	
10/2	수도생활 교령	유수일 신부	
10/9	평신도 교령	한홍순 교수	
10/16	선교 교령	김준철 신부	
10/23	사회 매체 교령	김영춘 신부	가톨릭회관
10/30	일치 교령	김영국 신부	3층 강당
11/6	사제양성 교령	정의철 신부	
11/13	사제생활 교령	정의철 신부	
11/20	종교자유 선언	한홍순 교수	
11/27	그리스도인 교육 선언	미정	
12/4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에 입각한 종교간 대화	노길명 교수	
12/11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과 한국 교회	미정	
12/18	2학기 수료식, 종합토론,	민병덕 신부	
	1기 수료생 졸업식	한홍순 교수	

### 2. 수강료

학기당 100,000원(수도자 · 대학생 70,000원)

### 3. 수강료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400-957246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협

### 4. 신청

우) 100-809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호 서울평협 사무국

☎ 777-2013, 757-7851 FAX 778-7427 e-mail: clak@catholic.or.kr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평협소식 2007 제9호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호 TEL 02 777 2013, 757 7851 FAX 02 778 7427

<http://clak.or.kr> e-mail: clak@catholic.or.kr

발행일 : 2007. 7. 2 발행인 : 한홍순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우리 정서에 맞는 새 성가 7곡 첫선 보여 한국평협 '제1회 우리 성가 작곡 공모 시상식' 열어

제1회 우리 성가 작곡 공모 시상식과 발표회가 6월 29일 저녁 7시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 성당에서 열렸다.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한홍순, 담당사제 민병덕 신부)가 우리 정서에 맞는 아름답고 친근한 성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공모에서는 가톨릭 대학교 신학부 3학년 김승용 세례자 요한 신학생이 영예의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자와 수상곡은 다음과 같다.

- ▲ 최우수상 : 김승용 세례자 요한 「성가정」
- ▲ 우수상 : 이의선 마리아 「나의 사랑 나의 기도」 ▲ 장려상 : 박수진 안젤라 「나의 사랑 나의 기도」, 김재원 이냐시오 「축복의 미사」,



▲ 시상식 미사 후 수상자들과 함께 한 염수정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 주교, 한홍순 한국평협 회장 등

## 싣는 순서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한국평협 회원 단체〉

- 마리아 사업회(포콜라레 운동)
  -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 레지오 마리애 대구 의덕의 거울 세나뚜스
  - ME한국협의회
- 
- ◎ 동정
  - ◎ 교황님의 가르침
  - ◎ 세계 교회 소식

김승용 세례자 요한 「축복의 미사」, 설세찬 대건 안드레아 「나의 사랑 나의 기도」, 박현미 체칠리아 「성가정」 등 모두 7곡이다.

작곡발표 미사 후 진행된 시상식에서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 염수정 주교는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승용 신학생에게 상패와 상금 200만원을 수여하고, 우수상 수상자 이의선 마리아씨와 장려상 수상자 5명에게 각각 상패와 상금을 전했다.

염수정 주교는 축하말씀을 통해 “수상곡들이 하나같이 아름답고 따라 부르기 쉽다”고 말하고 “아름다운 우리 성가들이 더욱 많이 불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평협 한홍순 회장은 인사말에서 “마음을 다해 부르는 성가는 두 번 기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우리 정서에 맞는 새로운 성가를 노래하는 것은 이 땅의 전례를 토착화해서 겨레의 문화와 보편교회의 전례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일이므로 우리 하느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할 만하고, 또 함께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김승용 신학생과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이번 작곡 공모에 응모한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성음악 발전에 모든 분들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시상식에 앞서 평협 담당사제이며 서울대교구 사목국장인 민병덕 신부 주례로 봉헌된 미사에서는 아마뚜스 합창단(지휘 박재광)과 서울대교구 청담동 성당 쌍투스 성가대가 미사 성가로 수상곡들을 직접 들려줘 그 의미를 더 했다.

이번 작곡 공모는 지난해 실시한 제1회 우리 성가 노랫말 공모에서 뽑힌 5편의 노랫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수상곡 심사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종교음악학과 고승익 크리스토플 교수와 추계예술대학교 음악학부 작곡과 김혜자 헬레나 교수, 서울대학교 음대 작곡과 이돈웅 베네딕토 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허영한 요셉 교수 등 4명의 평신도 작곡가들이 맡았다. 수상곡들은 오는 11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평신도주일’을 기념해 명동성당에서 열리는 제3회 서울대교구 성가합창제를 통해 연주되고 보급될 예정이다.

수상곡의 악보집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평협 사무국(☎ 02-777-2013)으로 연락 바란다.

#### 우리 성가 작곡 공모 시상식 보도

한국평협의 이번 작곡공모 시상식과 발표회는 6월 30일 KBS 1TV <뉴스광장>과 7월 2일 평화방송 TV <가톨릭뉴스>, 6월 29일 KBS 1 라디오와 평화방송 FM <PBC 뉴스의 현장>, <PBC 뉴스와 세상>, 7월 8일자 평화신문과 가톨릭신문에 보도됐다.

한편 한국평협은 7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네 달 동안 제2회 우리 성가 노랫말 공모를 시행한다. 소재는 성체성사의 나눔과 희생정신을 일깨우고 신앙적 영감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이

면 된다. 작곡공모는 노랫말 공모에서 선정된 가사를 대상으로 오는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진행되고, 당선작은 내년 5월에 발표된다.

## 평신도 교육실태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국평협 상임위 5월 26일~27일 전주에서 열려



▲ 1차 상임위원회의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5월 26~27일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전주교구청에서 전국 교구 평협 회장단과 상임 단체장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한국평협 40년(2008년) 준비위원회 구성을 회장단에 일임키로 했으며, 한국평협 사회사도직연구소 주관으로 전국 교구, 본당, 운동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 ‘한국천주교 교육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교육 실태조사는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가 2007년도 위원회 주요사업 가운데 하나인 ‘평신도 교육실태조사’를 최근 한국평협 사회사도직연구소에 의뢰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아울러 오는 8월 제주교구에서

열리는 제1회 한국청년대회에 관심을 갖고 협력키로 하는 한편 서울평협 홈페이지 ([www.clas.or.kr](http://www.clas.or.kr))를 통해 볼 수 있는 ‘공의회 과정’ 동영상을 교구별로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공의회 과정’은 서울평협이 각종 교육을 통합해 운영하는 평신도학교 과정 중 하나로, 제2차 바티칸공의회 16개 문헌 전체를 다루는 강좌로서 올해 1학기는 3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실시됐고, 2학기는 9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열리게 된다.

한국평협은 이번 상임위 회의에 앞서 전주교구장 이병호 빙첸시오 주교의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강의를 듣고, ‘한국천주교회와 평신도사도직’을 주제(고려대 조광 교수 발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에는 한국평협 상임위원회들과 분과위원장, 전주교구 평협 임원, 전주교구 각 본당 사목회장 등이 함께했다.

한국평협은 8월 31일부터 이틀간 원주교구 배론성지에서 열리는 2007년도 제2차 상임위원회 때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와 공동으로 사회사도직연구소 ‘교육 실태조사’ 중간 점검을 위한 세미나를 마련할 계획이다.

## ‘한국천주교회와 평신도사도직’ 심포지엄 5월 26일 한국평협 상임위원회 전주 회의 에 앞서 열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5월 26일 상임위원회 올해 첫 번째 회의가 열린 전주시 전주교구청에서 ‘한국천주교회와 평신도사도직’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박해시대 평신도 활동에 비춰 오늘날 평신도사도직이

나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광(이냐시오,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는 “평신도 사도직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교회사의 여러 사건 중 가장 중요한 회기점은 1784년의 교회창설, 1831년의 교구설정, 1882년 신앙자유의 봉인이라는 사건을 우선 주목할 수 있고, 1920년대 초반 교황 비오 11세가 등극한 이후에 전개된 가톨릭운동(Actio Catholica)의 영향 하에 조선에서도 평신도운동이 가톨릭청년운동의 형식으로 시작된 일, 1962년부터 1965년에 걸쳐



▲ 조광 교수

(1965년) 이후 단계의 활동과 그 이전의 활동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면서 한국교회사 전체를 통관해서 평신도 사도직 활동을 논하기 위해서는 “1965년도의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Apostolorum Actuositatem)이나, 1982년에 반포된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적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 (Christifideles Laici)에 제시된 평신도사도직 활동의 개념 및 범위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천주교회와 평신도 사도직-박해시대 교회를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표에서 조교수는 먼저 “박해시대 신자들은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주체적 인식이나 이론적 기반을 가지지 못했지만 박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자신의 존재를 뚜렷이 자각하고 임무를 확인해야 했던 천주교 평신도이자 사학죄인(邪學罪人)이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당시 평신도 활동은 계시진리와 가톨릭 윤리원칙을 전파하기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그 시대 신자들이 전개했던 가장 중요한 사도직 활동은 순교를 각오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일”이라며 “당시 기준에서는 가장 훌륭한 사도직을 실천하는 것이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조 교수는 또 “당시 신자들이나 교회는 평신도 활동을 특별한 평신도 사도직으로 인식하지 못했지만 오늘날 입장에서 되돌아보면 놀라울 만큼 많은 분야에서 평신도 사도직이 실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면서 “그들은 신앙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교회 안팎으로 신앙인이 해야 할 책임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의 이와 같은 선구적 노력들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평신도 사도직 활동의 개념을 정립



▲ 한국평협 심포지엄을 경청하는 참석자들

진행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등도 한국교회의 평신도 사도직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중요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조 교수는 “이 공의회의 결과 한국의 평신도들도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능동적 지위를 형식적으로는 확인 받았으며, 따라서 평신도 사도직의 개념이 분명히 제시된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하는 데 이바지했으며, 우리나라 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덧붙인 조광 교수는 아울러 “신앙 선조들은 자신의 재능과 재산과 목숨 까지도 희생해가면서 새롭게 터득한 신앙을 실천함으로써 그들은 겨레 구원을 위해 노력했고, 오늘날 우리에게 순교 전통이라는 고귀한 유산을 남겨줬다”며 “우리는 민족화해와 사회정의 실현, 인간 존엄성 극대화,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박해시대 선조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주간  
심재기(바오로, 국어학) 전  
서울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선 노길명(세례자 요한, 고  
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교회 평신도 사도직 활동은 오랜 박해과  
정을 통해 형성된 ‘순교 영성’과 사회참여를  
통해 강화된 ‘사회 영성’이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전개돼왔다”면서 “평신도들이 사회  
모순과 부조리를 파악하고  
복음과 신앙인의 입장에서  
긴장관계를 유지할 때 평신도

▲ 노길명 교수  
사도직 운동의 구체적 목표와  
프로그램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교수는 현재 한국평신도 사도직운동은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고 전제하고, “한국평신  
도 사도직의 올바른 방향과 방법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징표’를 읽을 수 있어야 하



▲ 심재기 교수



▲ 노길명 교수  
사도직 운동의 구체적 목표와  
프로그램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교수는 현재 한국평신도 사도직운동은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고 전제하고, “한국평신  
도 사도직의 올바른 방향과 방법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징표’를 읽을 수 있어야 하

고, 거기에 적합한 영성을 지닐 수 있어야 하며, ‘시대의 징표’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을 때, ‘대자적 존재’로서의 평신도 의식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시대 징표’와 ‘시대적 영성’을 평신도사도직 활성화를 위한

두 가지 화두로 제시했다.



▲ 김영수 신부

김영수(헨리코, 전주교구  
용머리본당 주임) 신부는 논  
평에서 평신도 사도직 수행  
방법을 개인 사도직과 단체  
사도직으로 구분하고, 올바른  
단체 사도직 활동이 되기 위한  
기준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성화 소명을  
으뜸으로 삼는 우위성 △가톨릭 신앙 고백의  
책임 △확고하고도 진정한 친교의 증거 △교  
회의 사도직 목적에 대한 순응과 참여 △인간  
사회에서 교회의 현존을 위한 투신을 꼽았다.  
김 신부는 “이러한 식별 기준들을 토대로 볼  
때 한국교회 단체 사도직은 교회 안에서의 봉  
사라는 측면은 잘 발전되었지만 각 단체(교회  
운동)간 일치와 친교, 인간 사회에서 교회의  
현존을 위한 투신에는 아직 소극적인 것이 사  
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신부는 “평협은 교회  
의 단체 사도직 운동들이 서로 연대하고 협력  
함으로써 진정한 친교와 일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하며, 평협은 기존 평신도  
사도직 단체들의 협의체라는 고정된 인식에서  
한걸음 나아가 단체 사도직 운동이 새로운 상  
황과 시대에 적응해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  
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신부는 또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논의를  
더욱 발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제2차 바

터칸 공의회에서 천명한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교회’가 지니는 가치와 내용에 대한 신학적인 성찰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대안연구가 교회 전체의 공감 속에서 꾸준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신자들이 교회론에 대한 공의회의 가르침을 분명하고도 쉽게 알아듣고 교회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고 말했다.

역시 토론자로 나선 김정희(빅토리아, 윤리학, 신학) 전남대학교 명예교수는 “발제자는 오늘의 평신도 존재

와 위치를 확인하고 과제를 설정하기 위해 어제의 역사적 사건을 전제로 ‘한국 천주교회와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내용’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근대학문 방법론을 통해서 파헤침으로써 역사적 실체의 의미를 밝히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하고, “시대의 양상에 따라서 평신도 사도직의 내용과 범위는 차이가 있지만 그 활동은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인식하고 판단해야한다”면서 “어제의 한국평신도의 존재와 위치가 사회 안에서는 능동적이었지만 교회 안에서 피동적이었기에 오늘의 시점에서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재평가와 재인식이 요구된다면 어제의 평신도의 순교정신은 오늘의 평신도 사도직을 위한 기준설정에 위대한 가치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안에 살고 있는 평신도들이 오늘의 세상에서 신앙고백의 기본행태인 ‘나는 너를, 나자렛 예수를 이 세상과 내 삶의 뜻(Logos)으로 믿는다’는 말을

중심으로 가정과 사회 안에서 진리, 정의 그리고 평화를 위해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할 인간의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한국평협 제2차 상임위원회

8월 31일-9월 1일

### 원주교구 배론성지에서 신자교육 실태조사 세미나도 개최

한국평협은 올해 두 번째 상임위원회를 8월 31일과 9월 1일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윤봉옥 요셉, 담당사제 박상용 아우구스티노 신부) 주관으로 배론성지에서 개최한다.

이번 모임에서는 평협 사회사도직연구소(소장 오병선 요한)가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위원장 염수정 주교)로부터 ‘평신도교육 실태조사’를 의뢰받음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앞서 실태조사 중간 점검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발제는 민병덕 평협 담당사제(‘평신도 교육과 활동’)와 사회사도직연구소 연구위원들 중 오용석 프란치스코 사베리오(경성대학교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평신도 교육의 효율성 제고 방안’) 위원과 정찬남 모니카(국제문화대학원대학 교수, 한국여성생활연구원장 ‘신자 평생교육을 위한 제언’) 위원, 조은상 토마스 아퀴나스(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청장년 총을 중심으로 한 신앙단계별 평신도양성 모형’) 위원과 이윤식 후고(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위원 등이 맡기로 했다.

평협 상임위원회와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참석하는 이날 세미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 김정희 교수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교회운동 · 단체 대표 간담회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한홍순 토마스, 담당사제 민병덕 비오)는 지난 5월 10일 저녁 6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회의



▲ 서울대교구 운동 · 단체장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실에서 서울대교구 교회운동 · 단체장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평협 단체분과위원회(위원장 김남영 요한)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 빙첸시오 아 바오로회,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운전기사사도회 등 평협 회원단체의 대표들이 모여 운동 ·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면서 지난 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 '서울대교구 평신도 운동 · 단체 친교와 나눔' 행사를 오는 11월 중 갖기로 하고, 행사 준비를 위한 모임을 지속적으로 열기로 했다. 또한 운동 · 단체 간의 친교를 나누고, 교류를 활발히 함으로써 평신도사도직 활동의 발전을 꾀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단체의 주요 행사에 교류 방문하기로 했다.

이날 회합에서는 또 회원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들의 등록을 유도하고, 운동 · 단체 총람을 만들어서 배포하기로 했다.

## 본당 사목협의회장 연수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5월 18일부터 1박2일 동안 본당 사목협의회장과 평협 임원 등 총 1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본당 활성화를 위한 연수를 가졌다.

이번 연수는 서울평협 지구분과위원회(위원장 최원규 사무엘) 주관으로 첫날 서울평협 담당사제이며 교구 사목국장인 민병덕 비오 신부가 '본당 사목협의회의 조직구조와 활성화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강의한 후 조별로 주제토의를 가졌다. 둘째 날엔 '본당공동체의 활성화와 사목협의회장의 역할'을 주제로 서울대교구 서서울지역 교구장대리인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의 강의에 이어 조별토의 결과를 발표하고 모두가 함께 하는 전체회의를 가졌다.

조규만 주교는 "교회 공동체는 다른 인간단체와 구별되며, 교회의 중심에 하느님이 계셔야 하고, 그렇게 될 때 성장할 수 있다"고 역설하며, "기도하는 공동체, 공부하는 공동체, 특히 하느님의 말씀인 성서를 공부하는 공동체는 잘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토의에서 사목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사목협의회 활동 지침서의 마련과 본



▲ 본당 사목협의회장 연수에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는 조규만 주교, 한홍순 회장

당 예산 집행시 사목협의회 심의를 거치는 것 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성전 신축 때 부지나 건물의 매입이 날로 어려워지는 상황이므로 상가나 소규모의 건물에 입주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공동체 사목과 관련해 주임신부와 사목협의회가 신념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소공동체별로 전례에 직접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개발하여 시행한다면 소공동체 사목은 성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또한 본당 사무장 순환근무제는 문제점을 보완한 후 조속히 실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고, 사목회장의 임기와 선출 방법을 명시한 직무 매뉴얼을 교구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사목회장과 주임신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커지거나 반대로 제한되는 단점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특별히 재정 부담이 큰 사목적 결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당 사목협의회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 환경포럼

‘생태적 삶을 사는 교회 공동체’를 주제로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6월 3일 오후 2시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환

경포럼을 가졌다. 서울평협 생명·환경분과위원회(위원장 한상준 안토니오) 주관으로 가진 이날 포럼은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인 조대현 바오로 신부의 강의와 참석자들의 토의로 진행됐다.

‘창조질서보전을 위한 교회의 우리농·환경운동’이라는 내용으로 강의한 조대현 신부는 “생태적 삶을 사는 교회 공동체로 ‘초록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 2006년 환경의 날 교구장 사목서한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는 창조질서를 보전하는 생태사도직에 나서야 한다”며, “교회와 사목자의 우선적 노력과 관심과 더불어 초록교회를 만들기 위한 생태사도직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을 다짐하는 평신도들의 몫이 더욱 중요하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성화시키는 노력이 바로 생태사도직의 핵심”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노인지도자 연수

노인인구 증가와 고령화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6월 8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노인사도직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해서 노인지도자 연수를 개최했다. 서울평협 노년분과위원회(위원장 최종계 세례자 요한) 주관으로 열린 이날 연수는 본당 노인분과장과 분과위원, 노인 봉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여성생활연구원장 정찬남 모니카(한국평협 사회사도직연구소 연구위원)씨의 주제발표와 적극적인 제3기 활동을 위한 ‘오름회’ 안내, 영상포럼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정찬남씨는 주제발표를 통해 “바람직한



▲ 환경포럼에서 강의하는 조대현 신부



▲ 노인지도자 연수 강의 모습

노인사목을 위하여 노인에게 호의적인 공간으로서의 본당, 관할 지역 내 신자뿐 아니라 비신자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노인사목 범위 확대, 노인들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는 다각적 사목 프로그램 개발, 본당 노인사목분과 신설 및 예산 지원”을 제안했다.

## 청년포럼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6월 23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에서 평신도사도직 청년단체를 대상으로 ‘청년포럼’을 열어 교구 내 청년사도직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 안에서 청년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담당 배상엽 바오로 신부가 교구 청년사목의 역사와 현황, 청년 공동체와 청



▲ 청년포럼에서 배상엽신부(청소년국 청년부)가 강의하고 있다.

년사목의 발전에 대해 강의했고, 이어서 참가자들이 주제를 서로 나누는 토의를 가졌다.

서울평협 청년·청소년분과위원회(위원장 천인욱 이레네오)가 주관한 이날 포럼에서 한홍순 평협 회장은 “청년은 평신도 사도직 활동의 허리를 담당하며, 청년의 평신도 사도직 운동·단체의 활동은 교회활동의 근간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라며 청년 평신도 사도직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제 1차 임원회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6월 18일 교구청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번째 임원회를 열고 2007년도 상반기 실시한 각 분과별 사업의 보고와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사업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평협 회장단과 분과위원장으로 구성된 임원회는 이날 특별히 그동안 여타 분과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부족했던 점을 반성하면서 평협 전체의 사업과 행사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위해 분기별 임원회 실시와 가을 임원 성지순례를 갖기로 하였다.

## 제 1차 상임위원회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6월 20일 평협 회의실에서 올해 상반기를 결산하는 상임위원회를 가졌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상반기 사업을 결산하며 1차 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재확인했다. 상임위원회는 회장단과 15개 지구 대표회장, 상임단체장, 사회사도직연구소장 등으로 구성된다.

## 제 1차 자문위원회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6월 29일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회의실에서 올해 제1차 자문위원회를 갖고, 상반기 동안 서울평협이 실시한 각종 사업들을 보고하고,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사업들에 대한 자문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회의 후에는 한국평협이 주최하는 제1회 우리성가 작곡공모 시상식과 발표회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이날 특별히 평신도학교 ‘공의회 과정’의 높은 참여에 대해 평신도의 높은 교육열을 재확인했으며, 제1회 우리성가 작곡공모의 높은 참여율에 문화 복음화의 한 측면으로서의 평신도의 기여와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을 확인했다.

자문위원들은 특히 현재 사회사도직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평신도 교육실태 조사사업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 본당 중심의 재교육만이 아니라 각 직능단체별 재교육과 예비자교리의 내용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촉구했다.

## 공의회 과정 1학기 수료식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평신도봉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개설한 ‘공의회과정’이 15주간의 1학기 일정을 마쳤다. 지난 6월 26일 1학기를 마치며 가진 수료식에서는 총 173명의 수강생 중 135명이 수료해 수료증을 받았으며, 이날 가진 수료미사를 통해 민병덕 신부(서울평협 담당사제)는 “긴 일정에도 지치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 공부하신 여러분들을 치하한다”며 수료생들을



▲ 평신도학교 ‘공의회과정’ 1학기를 마치고 민병덕 신부(서울평협 담당사제) 주례로 수료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격려하고, “앞으로 공의회 정신이 우리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노

력해 아

름 다 운

교회와

세상을

이뤄나

가자”며



▲ 수료증을 받는 1학기 수료생

2학기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홍순 회장도 지난 2000년 대회년 교황청 방문 시 “공의회문헌을 다시 읽으라”는 돌아 가신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의 말씀을 회상하며, “공의회문헌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한마음으로 공의회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1학기 교육과정에 열심히 참여한 분들의 열의를 치하했다.

‘공의회과정’은 서울평협이 올해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평신도학교 교육과정 가운데 하나이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관련 교육이 그 동안 지엽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점에서

착안하여 통합적으로 공의회 문헌 16개 전체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문헌의 길이나 비중에 따라 한주, 혹은 두 주간에 걸쳐 한 문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강사진도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진으로 구성해 깊이 있고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힘썼다.

또한 교육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서울평협 홈페이지 동영상 갤러리에 강의내용 전편을 동영상으로 올려놓음으로써 복습을 원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강의를 듣지 못했던 이들에게도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의회과정’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수원, 춘천, 부산에서까지 수강함으로써 평신도들의 뜨거운 교육열을 보여줬고, 1학기에는 <보편공의회 의미와 역사>, <제2차 바티칸공의회 배경과 의의>, <계시현장>, <교회현장>, <전례현장>, <사목현장>, <공의회 인간관 및 구원론>, <공의회 성사론 및 마리아론>이 강의됐고, 2학기에는 <주교교령>, <사제양성교령>, <사제생활교령>, <수도생활교령>, <평신도교령>, <선교교령>, <사회매체교령>, <일치교령>, <동방교회교령> 등 9개 교령과 <그리스도인 교육선언>, <비 그리스도교 선언>, <종교자유선언> 등 3개 선언을 비롯해 <제2차 공의회 정신에 입각한 종교간 대화>,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정신과 한국교회> 등의 내용으로 오는 9월 4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진행된다. 공의회과정의 한학기 수강료는 10만원이며, 수도자와 대학생은 7만원으로 할인된다. 1학기와 2학기를 모두 수료하면 과정전체에 대한 수료를 인정하는 수료장을 수여하며, 2학기부

터 수강하고 1학기를 수강하는 것도 괜찮다. 신청은 8월 말까지 서울평협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

##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교구장 주교 영명축일 축하식



▲ 수원교구장 최덕기 박으로 주교의 영명축일 축하식

올해로 환갑을 맞은 수원교구 제3대 교구장 최덕기 박으로 주교의 영명축일 축하식이 6월 29일(금) 오후 6시 교구청 지하식당에서 있었다. 교구장의 뜻에 따라 평소와 다름없이 조촐하게 마련된 이 자리에는 친척과 친지, 평신도 대표 등의 하객이 참석해 하느님 안에서 훌륭한 사제로, 수원교구를 이끄는 교구장으로 모범이 되는 삶을 삶으로써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존경받는 지도자로 살아온 지난날을 축하드리며, 교구장의 영육간의 건강을 축원했다.

하객의 축하에 대한 응답으로 최 주교는 감사의 인사와 함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이 삶을 따라간 바오로 성인의 모습을 되새기며, 바오로 성인을 본받아 더욱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1948년 출생한 최 주교는

1996년 주교 서품에 이어 1997년 김남수 안젤로 주교에 이어 수원교구 제3대 교구장으로 착좌해 현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매스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축하식에는 수원교구 평협 안병철 도미니코 회장과 평협 임원, 단체 대표, 대리구 평협 회장, 평협 사무국 임원들이 함께 했다.

### 고 황재웅 전 평협회장 1주기 추모미사

13, 14대 수원교구 평협 회장을 역임한 고 황재웅 마태오 회장의 1주기 추모미사가 6월 27일(수) 오후 5시에 교구청 5층 성당에서 이용훈 마티아 총대리주교의 주례로 거행됐다.

이용훈 총대리주교는 미사 강론을 통해 “황



▲ 고 황재웅 회장의 추모미사를 집전하는 이용훈 총대리주교

마태오 회장이 이제는 고통 없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오히려 아직도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 것이라 믿는다”고 추모하고 “사회에서는 교수로서 봉직하며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교회 내에서 늘 기도하며 봉사하는 현신적인 신앙인의 참모습을 보여준 분”이라며 고인을 기렸다.

고 황재웅 회장은 1984년부터 수원교구 평협에서 봉사했으며,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교구평협 회장을 역임했다. 이 날 추모미사에

는 고 황재웅 마태오 회장의 친척과 친지, 역대 교구평협 회장과 임원들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제3회 대구대교구 평협 제단체 등반대회 및 산상음악회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이용기 요한 비안네, 담당사제 김율석 마태오 신부)는 5월 12일(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한티순교성지에서 제3회 평신도사도직단체 등반대회 및 산상음악회를 가졌다. 이 행사는 사도직 활성화를 위해 애쓰는 제단체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상호간에 친목과 우의를 돋독히 하고 단체의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했다.

우중에도 불구하고 조환길 총대리 주교를 비롯해 제단체 담당사제와 회원 400여명이 참가했다. 1부 등산에 이어 순례자의 집 광장에서 노래 장기자랑과 가톨릭남성합창단과 가톨릭 국악예술단이 출연하여 독창과 합창, 난타 공연을 펼침으로써 신자들과 어우러져 신명나는



▲ 순례자의 집 광장에서 펼쳐진 산상음악회의 난타 공연장면

교회공동체상을 정립했다.

이날 조환길 주교는 격려사를 통해 “교회의 주인인 평신도가 다가오는 2011년 교구설정 100주년을 잘 맞이하기 위해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선포에 앞장설 것”을 요청했다.

## 제32회 대구대교구 교구장기 교회 및 직장 테니스대회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가 주최



▲ 교구장기 테니스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시합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하고 대구대교구 가톨릭 체육인회(회장 김선웅, 담당 김명현 신부)가 주관한 교구장기 테니스대회가 5월 24일(목)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효성캠퍼스 및 보조구장에서 열렸다.

경기는 단체전(본당 26팀, 직장 17팀)과 개인전(부부 4팀, 남성 노년부 7팀, 여성 6팀)으로 치러졌고 각 부문별로 시상이 있었다. 특히 많은 관심이 집중된 단체전 중 교회대항에서는 장성본당 A팀이 우승, 성김대건본당 A팀이 준 우승을 차지했고, 육수본당 A팀과 이동본당이 공동 3위를 차지했다. 또한 직장대항에서는 성의고등학교가 우승, 대구가톨릭대학교 A팀이 준우승을 차지했고, 무학고등학교와 균화

여자중학교가 공동 3위를 차지했다.

본선진출에 실패한 단체팀에는 참가상이 주어졌고, 본선에 진출하였으나 입상하지 못한 단체에도 본선진출상이 주어졌다. 이 외에 사동본당과 대구대교구청 A팀이 모범 단체상을 받았고, 송현본당과 성의여자중학교가 응원 단체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테니스 동호인뿐만 아니라 많은 교구민들이 함께 하는 사귐과 나눔의 잔치가 됐다.

##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부산교구 제141차 상임위원회의 및 성모의 밤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이정우 마르티노, 담당 황철수 바오로 주교)는 지난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2일의 일정으로 밀양 하남에서 상임위원회와 성모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교구설정 50주년 기념 도보순례」 최종 점검과 담당 봉사자 교육, 도농간 결연상황과 활동내용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튿날 아침에는 전동기 유스티노 교구 선교 사목국장의 집전으로 예수승천대축일 미사를 함께 봉헌하고 도보순례단이 3일째 머물 숙소인 감물청소년수련원을 방문해 제초작업, 방역, 청소 등을 실시하고 귀가했다.

제1부로 진행된 141차 상임위원회에서는 1호 안건으로 도보순례 최종점검, 인증서 및 기념품 배분, 2호 안건 담당 봉사자 교육, 3호 안건 도농간 결연 상황과 활동내용 평협 흠 페이



지에 탑재하여 관리, 4호 안전 회장, 부회장, 자문, 고문, 위원, 각 부장 및 차장, 지구장 임명장 수여 등이 논의됐다.



▲ 성모의 밤을 마치고 기념촬영하는 부산평협 상임위원들

## 부산교구 설정 50주년 기념 순교신앙사적지 도보순례

부산교구설정기념사업회가 주관하고 부산평협과 부산교회사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순교신앙사적지 도보순례가 5월 24일(목)부터 27일(일)까지 3박 4일간 실시됐다. 이번 도보성지순례는 총 200리 길로 부산교구청을 출발하여 울산, 언양, 밀양, 삼랑진 김범우 묘소에 이르는 도보순례였다.

참가희망자 143명 중 단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선조신앙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기도와 극기로 순례를 마치고 부산교구 초대 주교좌



▲ 도보순례 중 울산 병영장대골에서의 기도

성당 이 었던 중 앙 성 당 에서 순 력 인 증 서 수여 와 함께 파견 되

었다. 범 교구적인 차원에서 처음 실시된 이번 순례를 마치고 난 참가자들의 하나같은 염원은 다음에 또 다시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발로 뛰며 살아 있는 신앙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해 줄 것을 주최 측에 요구했다.

## 아! 정주교님

부산교구 3대 교구장이셨던 고 정명조 아우구스티노 주교의 장례식이 6월 4일 고인의 뜻에 따라 조출하면서도 엄숙하게 치러졌다.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서는 방문하는 조문객을 영접하고 방명록관리, 연도 및 사망미사 안내, 주차관리, 식음료 관리 등의 일을 초상 첫날부터 장례미사까지 주관했다. 6월 6일에 있었던 삼우미사에서는 교구장비서실의 도움을 받아 고인의 유품을 주교좌성당 앞마당에 전시하여 모든 신자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봉사를 했다.

##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8회 어르신 게이트볼 대회 개최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정영근 라우렌시오, 담당사제 최광조 프란치스코 신부)는 제8회 어르신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해 교구 내 각 본당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를 벌였다.

5월 12일(토), 충청북도 노인복지회관 잔디구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폭풍이 불고 비가 내릴 것이라는 일기예보에도 불구하고 예

년과 같은 수준의 참가자로 성황을 이루었다. 16개 본당, 71명의 어르신들은 추첨으로 5명 1조의 14개조로 팀을 편성하여 네 그룹이 오전 경기를 풀 리그로 진행했고, 오후 경기는 각 그룹별 1, 2위 팀이 겨루는 토너먼트로 거행됐다.

오전에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경기가 진행되어 어려움이 많았지만 어르신들은 평소 단련된 체력과 건강으로 지칠 줄 모르고 경기를 하였으며, 오후 경기는 비가 개어 원만하게 대회를 마칠 수 있었다. 경기는 서로 격려하고 양보하는 신양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으며, 참가한 어르신들은 이긴 팀이나 진 팀이나 모두 즐거운 하루였고 내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것을 기약하며 행사를 마쳤다.

### 본당 평협 임원 연수 – ‘청소년’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2007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모두 5회의 본당 평협 임원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네 번째 연수로 청소년부장과 교육부장 연수를 실시했다.

6월 9일 실시한 이번 연수에는 36명의 본당 평협 임원이 참가하였으며, 교구 시노드 의안으로 채택된 ‘청소년’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하였고, 10월 3일 개최되는 청주교구 50주년 기념행사로 추진 중인 교리·성경 50문항 외우기 행사 참여에 대한 의견 교환과 본당별 추진 방법에 대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졌다.

양윤성 다윗 교육국장 신부는 이날 특강에서 청소년 문제의 다양한 성격과 현실을 진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 이주사목 봉사활동

2007년 6월 27일(일), 외국인 노동자들의 친선 농구 경기가 청주시 쌍동이 체육관 야외 농구장에서 실시됐다. 청주교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이 행사에는 현도복지대학, 흥덕성당, 대소 성당 등 3개 팀이 참가했다. 날씨가 덥고 농구장이 시멘트 바닥이라 열악한 조건이었지만 100여 명이 참가하여 뜻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모임을 가지기로 다짐했다.

이날 친선 농구 경기는 이주사목 활동을 돋고 있는 10여 명의 봉사자들에게 큰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는 계기가 됐다.

청주교구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은 평신도들에 의해 확산되고 있다. 청주 공업단지와 음성·진천 지역의 공장 지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가톨릭 외국인신자 노동자들이 미사에 참례할 수 있도록 두 곳에서 영어 미사가 봉헌되고 있다.

현재 청주 흥덕성당에서 매주 일요일 오후 5시에 외국인을 위한 영어 미사가 봉헌되고 있고, 음성군 대소 성당에서 둘째 주, 넷째 주 오후 2시에 영어 미사를 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평신도 봉사자 1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흥덕성당에서는 2005년 하반기부터 영어미사를 시작했고, 미사에 참석하는 외국인 신자 수는 평균 40여명(한국인 신자: 40여명) 정도로서, 더 많은 자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돋기 위해 한글 교실 운영, 미용 봉사, 치과 진료, 협력병원 프로그램, 통역(외국인노동자 이직 관련 노동부 인력관리공단 방문 중재), 생활용품 및 혼옷 모으기 행사, 행사지원(부활절, 성탄

절, 농구시합)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교통편 제공, 어린이 돌보기 등의 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2007년 5월부터는 음성군 대소성당에서 매 월 둘째 주, 넷째 주 오후 2시에 영어미사를 봉헌하기 시작했고, 이 격주 미사에 참석하는 외국인노동자 신자 수만 50~7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의 생활에 빨리 적응하도록 돕고, 자기들끼리의 친교를 돋기 위하여 흥덕 성당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농구 팀을 결성하였고, 대소성당에서는 대소, 무극, 진천, 양성, 삼성, 음성, 이월 등 성당을 중심으로 결성된 6개 팀이 2007년 5월 13일부터 9월 초까지 지속적인 경기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들 봉사자들은 외국인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 이주여성들과 그 자녀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돌보려는 일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봉사자들의 역할은 아직 미미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많은 평신도들의 참여와 협조를 희망하고 있다.



▲ 광주대교구 설정 70주년 경축제의 2부 순서인 경축미사가 교구장 최창무 대주교의 집전으로 봉헌되고 있다.

70주년 경축제에 함께 했다.

광주대교구가 그동안 ‘빛을 찾아서, 빛을 따라서, 빛 속에서’라는 주제로 3년간 교구설정 70주년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통해 현재의 우리들을 점검하고 새롭게 도약할 자세를 갖춘 끝에 마련한 이날 축제는 오전에는 청소년 주일을 맞아 제12회 청소년축제가 인기가수들의 공연을 관람하는 공개방송과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본 행사로 1부 여는 마당에서는 교구의 발자취를 담은 사진전과 ‘아싸만세’ 생활실천운동 홍보, 외국인 민속 공연, 70권 추천도서 홍보, 생명나눔운동, 순교자현양회원 가입 등 나눔의 한마당이 됐다. 이어 2부 행사로 경축미사가 봉헌됐으며, 미사 중 교구평협 정기수 회장이 ‘평신도 신앙쇄신 다짐’을 교구민과 함께 선서했다. 꽃봉헌, 초봉헌, 제안서와 활동 보고서 봉정, 예물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봉헌하였다. 특히 나주 순교자기념본당 신자들이 준비한 순교자 현양 퍼포먼스를 보여주어 더욱 의미 있는 경축제가 됐다.

다음은 평신도 신앙쇄신 다짐 내용이다.

##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구 설정 70주년 경축제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정기수 스테파노, 담당사제 황양주 안토니오 신부)는 5월 27일 성령강림대축일에 4천여 명의 교구민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운동장에서 열린 교구설정

## ▶ 우리의 다짐 ◀

우리는 교구설정 70주년을 맞이하기 위해 3년에 걸쳐 어제를 점검하고, 오늘을 진단하며, 내일을 전망해 봄으로써 복음의 빛을 통하여 회심과 죄신의 기회를 갖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대망의 100주년을 내다보며, 우리 교구가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이 지역에 하느님 나라의 표지가 되고, 우리가 신앙의 열정으로 이 지역에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들이 될 것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은 실천사항을 다짐합니다.

하나. 신앙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아, 성체성사의 신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며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앞장선다.

하나. 하느님 강생의 신비가 가정을 통해 실현되었듯이, 가정의 중심을 이루는 가족기도와 우애를 통하여 거룩한 가정교회를 이루는데 앞장선다.

하나. 그리스도의 무차별적인 사랑을 본받아, 비난이나 단죄보다는 타인에 대한 배려에 익숙해짐으로써 보편된 형제애를 실천하는데 앞장선다.

하나. 세상의 다양한 가치 안에서, 이기적이고 일시적인 가치와 행복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신앙의 영원한 진리를 따르며 증거하는데 앞장선다.

하나.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듯이, 세대 간의 차이와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하느님 자비의 표지가 되는데 앞장선다.

2007년 5월 27일

천주교 광주대교구 평신도 일동

## 정해박해 180주년 기념 학술제

광주대교구 곡성성당(사목회장 김종득 루수, 주임 윤빈호 루치오 신부) 주최로 5월 10일 정해박해 180주년 기념 학술회의를『정해년, 과거와 미래의 오늘』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발표 내용으로는 “교회사적 관점에서 본 정해박해” 원재연 박사(수원교회사 연구소 연구실장), “천주교 신자들의 옹기 교우촌 생활” 김혜숙 헬레나(국무총리소속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조사연구원), “정해박해와 시복시성운동” 마백락 클레멘스(영남교회사연구소 부소장), “곡성본당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옥현진 시몬 신부(광주가톨릭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곡성성당은 정해박해의 진원지이며 옥터성지가 있는 곳으로서 이번 학술제를 통하여 정해박해를 다시금 되짚어보고 곡성만의 고유한 성격을 띤 성지계발의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학술제가 열리고 있는 곡성성당 모습

## ● 지구평협 활동

광주대교구 서남부지구 평협에서는 새로 임명된 사목협의회 임원 및 단체의장을 대상으로 임원연수회를 5월 6일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해남성당에서 실시하였다. 이날 교구 사목

국장 황양주 신부의 ‘삼위일체 리더십’ 강의와 각분과별 토론과 발표로 이어졌다.



▲ 서남부지구 임원연수회 후 기념촬영

또한 체육행사로서 동부지구평협의 한마음 대회가 5월 13일 살레시오여자중, 고등학교에서 27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으며, 광산지구평협은 5월 24일 520여명이 모인 가운데 비아초등학교에서 열렸다.

## ● 단체평협 활동

### ▷ 2007 광주춘계성령대회

광주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회장 노성섭 토마스아퀴나스, 담당사제 남재희 율리아노 신부)는 5월 14일 염주동 대건·경환성당에서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07 광주춘계성령대회를 개최하였다. ‘참된 행복’이라는 주제로 오웅진 요한신부(예수의 꽃동네 형제회)의 강의가 있었다.

### ▷ 운전기사사도회 창립18주년 기념행사

지난 5월 23일 광주대교구 운전기사사도회(회장 최옥호 윤리오, 담당사제 안성완 이냐시오 신부)는 창립 18주년을 맞아 전 회원과 은

인들이 모여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기념미사를 봉헌하고 체육행사를 가졌다.

### ▷ 가톨릭여성산악인회 산상미사

가톨릭여성산악인회(회장 김정례 글라라, 담당사제 황양주 안토니오 신부)는 6월 15일 무등산에서 산상미사를 130여명의 전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봉헌했다. 이날 특별히 시각장애인선교회의 장애우 20여명과 함께 산행 길에 올라 시각장애인들이 평소 생각조차 못했던 등산을 산악인회 회원들의 인도로 함께 하는 뜻 깊은 하루를 보냈다.

### ▷ 연령연합회 간담회

광주대교구 연령연합회(회장 김용주 안드레아)는 6월 22일 각 본당의 연령회장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가톨릭센터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상장예식의 근본과 체계적인 실현으로 평신도 사도직의 소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연령연합회 조직과 활성화에 대해서 열띤 토의를 가졌다.



▲ 연령연합회의 간담회 모습

#### ▷ 가톨릭의사회 무의총 의료봉사

광주대교구 가톨릭의사회(회장 문덕진 비오, 담당사제 신영철 베드로 신부)는 6월 23-24일 진도군 지산면 지산초등학교에서 무의총 의료봉사를 실시하였다. 의사, 간호사, 미용사 등 56명이 참여하여 내과, 외과, 산부인과, 정형



▲ 진료를 받고 있는 지산면 주민들

외과, 피부과, 치과 진료와 심전도, 복부 초음파, 임상병리검사 등 1,200여명의 주민들이 진료를 받았다. 또한 미용사 팀에서는 100여명의 컷, 파마 등의 봉사를 해 주었다. 가톨릭의사회는 매년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처럼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벽지 주민들이 바로 예수님 모습으로 알고 활동하다 보면 힘은 들었지만 기쁨이 더 크다는 회원들의 행복한 나눔의 시간이었다.

#### ▷ 봉현준비를 위한 성모신심 7주간 세미나

파티마의 세계사도직(회장 김재중 요셉, 담당사제 최기원 에밀리오 신부)은 6월 25일부터 8월 6일까지 매주 월요일에 봉현준비를 위한 성모신심 세미나를 7주간에 걸쳐 실시한다. ‘세속정신 없애기, 자신을 알기, 성모마리아를 알고 사랑하기,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기,

봉현의 생활화’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 ▷ 목포지구 여성연합 행사

광주대교구 설정 70주년 기념으로 5월 22일 목포지구 여성위원회(위원장 박월순 마틸다, 담당 고재영 야고보 신부)에서는 지구 내 각 본당 여성 신자들 1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여성연합 행사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성대히 가졌다. 제1부 미사를 시작으로 웃음치료의 시간을 갖고 점심을 나눈 후 제2부 한마음 행사가 이어졌다. 각 본당에서 준비한 장기자랑인 어로빅, 전통 혼례식, 각설이 타령 등을 발표했고 중간 중간 게임도 펼쳐져서 잔치의 한마당이 됐다.



▲ 목포 산정동본당의 초례청(전통혼례식) 공연

#### ▷ 광주카리타스자원봉사단 창단

광주가톨릭사회복지회(회장 이재술 신부)는 광주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 창단식을 6월 16일 평생교육원 대성당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는 봉사자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선서(평협 정기수 회장)에 이어 창단 미사를 봉헌했다.

봉사단 총재인 광주대교구장 최창무 대주교는 “만시지탄(晚時之歎)인즉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르다”고 말씀 하면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외아들까지 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봉사를 통해서 하느님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봉사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파견된 우리가 사람 같고 사람답기 위한 자격인 동시에 권리이기도 하며, 따라서 그냥 해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서 이는 사람값을 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강조하고 자원봉사단원 150여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축복해 주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 광주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 창단식

사제단은 지난 해 12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정부와 제주도 당국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에 의해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에 교구장 강우일 베드로주교는 5월 6일, 신자들에게 보낸 ‘평화의 섬 제주를 염원하며’라는 메시지와, 5월 17일 교구 성모의 밤 미사 강론, 5월 21일 저녁의 평화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군비증강으로 지킬 수 있는 평화는 없다.”고 분명히 하면서 제주 해군기지 유치는 평화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도는 군사시설이 없는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거듭나야 함을 역설했고 동시에 충분한 홍보와 식별과정을 거친 후 주민투표 절차를 거칠 수 있게 지도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교구 사제단, 수녀연합회 및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대표들이 5월 7일 모여 교구장님 메시지에 따른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5월 8일 교구 사제단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신뢰성과 객관성을 잃은 여론조사를 통해 유치결정을 발표한 제주도 당국의 부당성에 유감을 표하고 그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5월 18일에 평화기도회를 갖고 교구청 신부 중심으로 단식기도에 들어갔다. 5월 21일의 ‘평화의 섬 제주를 염원하는 기도회’를 계기로 제주교구 20명이 넘는 사제들이 단식 기도회에 동참했으며 5월 24일, 7일간의 단식기도를 중단할 때까지 평화에 대한 바른 인식 전환과 함께 많은 이들이 반대운동에 동참하는 기폭제를 이뤘다.

##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주평협, 제주교구와 함께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 전개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송상순 베드로, 담당사제 고병수 요한 신부)는 교구 사제단이 앞장서서 별이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제주교구

단식기도회를 중단한 이후 지난 6월 7일, 제주교구 사제 여섯 분과 평신도 전문가 그룹 6인이 동참하는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섬특별위원회’가 출범함으로써 교육자료를 통하여 교회가 가르치는 평화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면서 군사기지와 평화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역설해 나가면서 해군기지 유치 철회를 위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평화의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김창훈 신부(교구 총대리), 부위원장 고병수 신부(교구 사목국장), 총무 안창흡(언론개혁 제주포럼 사무처장), 위원 임문철 신부(제주중앙본당 주임), 김귀웅 신부(신창본당 주임), 강형민 신부(성 산포본당 주임), 현문권 신부(교구 사목국차장), 양길현 교수(제주대), 김익상 교수(제주교육대), 박찬식 교수(제주대), 장성철 소장(녹색 제주연구소), 하승수 교수(제주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6월 27일 오후 2시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정의평화위원회의 정식 안건으로 ‘제주교구의 해군기지 철회운동’이 올려져 제주교구 평화의 섬특위 부위원장 고병수 신부와 해군본부 서하기 군종 신부로부터 양측의 입장을 전해 듣고 정평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낸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평화는 무력이 아닌 평화로써 지켜진다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이라며 “제주교구 강우일 주교와 제주 사제단의 해군기지 반대 운동에 적극 지지하고 공감한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토대로 성명서를 작성하여 7월 2일에 개최되는 전국 주교회의 정례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 한국평협 회원 단체 소식

###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운동)

#### ‘범람’ 본부 베라 아라우조 초청 세미나 6월 8일 국회에서 열려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 운동)의 ‘일치를 위한 정치인 모임’에서는 포콜라레 운동 세계 총본부 ‘범람’ 책임자인 사회학자 베라 아라우조(Vera Araujo) 초청 세미나를 6월 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었다. 정치인과 경제인, 경제학자 등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양극화 사회의 새로운 도전 – 형제애” --일치를 위한 정치 운동과 공유경제--를 주제로 개최한 이날 세미나에서 베라 대표는 “세계화와 물질주의, 무신론적 경향 등의 각종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대사조를 뛰어넘는 ‘복음적 사고방식’이 절실히”고 지적하고 “포콜라레 여성의 원칙들은 구체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생활가치로 받아들여지면서 새로운 기업 활동을 넣고 있다.”고 말했다.



▲ 포콜라레 운동 세계 총본부 ‘범람’ 책임자인 사회학자 베라 아라우조(Vera Araujo)

“형제애와 더불어 빈부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공유 경제에 있다”고 제시한 베라 대표는 “공유 경제는 소유 문화가 아닌 주는 문화를 통해 경제에서 형제애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주는 문화는 소유 문화가 낳은 비인간화를 해독하고 인류를 성장시키는 희망의 도구”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단한 정책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관용의 정치”라면서 “형제애 정신으로 일치를 위한 정치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북대 이영훈 교수는 “공유 경제로 기업을 경영하는 곳은 국내에 10개 정도로 미약하지만 주는 문화와 노사간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면서 “경영의 효율을 살리고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유 경제의 보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2004년 9월 ‘정치는 사랑 중의 사랑’이라는 포콜라레 정신으로 뭉친 ‘일치를 위한 정치인 모임’이 마련한 것으로, 국회 국방위원장 김성곤 의원은 인사말에서 “‘일치를 위한 정치인 모임’은 몇몇 분의 포콜라레 회원들의 열정을 통해 보편적 형제애를 구현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첫 번째 과업임을 깨닫게 된 정치인들의 모임”이라고 소개하고 “마침 포콜라레 운동 총본부에서 ‘범립’의 책임자로 일하고 계신 베라 아라우조께서 방한하셨고, 이 기회에 우리는 혼돈스런 우리 정치계, 그리고 갖가지 복지정책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다”며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일치를 위한 정치인 모임에는 김낙성, 김명자, 김성곤, 김재윤, 나경원, 박상돈, 원희룡, 이상경, 정두언, 정장선, 강기갑, 공성진, 권영세, 김덕규, 김부겸, 신국환, 심재덕, 안명옥, 오제세, 유재건, 유펠우, 이계경, 이계진, 이상민, 진영 의원 등 25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참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서울평협 황기진 부회장(주. 투원상사 회장)과 김철중 재정분과위원장(한국가톨릭경제인회 부회장, 한진종합건설 대표) 박상조 정의평화분과위원장(롯데 상임고문), 최홍준 사무총장(가톨릭방송작가 회장), 그리고 가톨릭경제인회 박광순 회장 등이 함께 했다.

## 여름 마리아폴리 7월 22일-25일 경주와 평창에서 열려

마리아사업회는 올해 여름 마리아폴리를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경주 콩코드 호텔과 평창 휘닉스파크에서 개최한다. “사랑, 생명의 샘”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마리아폴리는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지역 주민은 평창 모임에, 대구, 부산 등 영남지역과 제주지역 주민들은 경주 모임에 참석하게 된다.

##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 ‘올바른 성모신심’ 특강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단장 팽종섭 그레고리오, 담당사제 윤병길 세례자 요한 신부)는 성모성월을 맞이한 지난 5월 2일(수) 서울대교구 서서울지역 교구장 대리 조규



▲ 올바른 성모신심 특강 강사(시계방향으로 조규만주교, 두봉주교 백은경수녀, 김옥순 수녀)



▲ 올바른 성모신심 특강을 경청하는 참석자들

한 특강이 이어져 연 인원 2163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5월 30일에는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니꼴라오 추기경을 모시고 명동성당 전 교우들과 ‘성모의 봄’ 행사를 가지면서 마무리됐다.

### 소년 프레시디움 성인 간부 교육 실시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는 5월 11일 산하 소년 뽀레시디움의 성인 간부 73명을 대상으로 오후 2시와 7시 두 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다. 첫 강의는 한휘운 아녜스 세

만 바실리오 주교를 시작으로 특강 행사를 개최했다. 조규만 주교의 ‘올바른 성모신심’에 대한 특강에 이어 5월 9일에는 전 안동교구

에 관한 성경 기록’에 대한 강의, 5월 16일 백은경 마리아 수녀의 ‘모범이시며 보호자이신 마리아’, 5월 23일 김옥순 마리아주딧다 수녀의 ‘사도들의 모후’에 대

나뚜스 회계의 ‘회계의 임무와 보조금 관리’, 둘째 시간에는 팽종섭 그레고리오 단장의 ‘소년 뽀레시디움의 운영’에 관한 강의를 듣고, 셋째 시간에는 한관섭 미카엘 부단장의 ‘뽀레시디움 간부의 임무’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다.

### 꾸리아 간부 교육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는 의정부 한마음 수련원에서 6월 5일 오후 4시부터 6월 7일 오후까지 2박 3일에 걸쳐 꾸리아간부 76명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6월 5일 저녁에는 양주열 신부의 ‘구원신학’을, 다음날 오전에는 정태영 신부의 ‘성모 신심과 묵주기도’에 대한 특강을, 오후에는 최경선 박사의 ‘성모신학’을 수강했다. 마지막 날에는 윤병길 신부의 ‘전례와 기도’를 수강함으로써 꾸리아 간부들의 영성이 한층 높아짐을 맛보았다.

### 레지오 마리애 대구 의덕의 거울 세나뚜스

#### 대구 레지오 마리애 도입 50주년 기념 신앙대회 – 그리스도와 함께 성모님과 함께

대구 레지오 마리애 의덕의 거울 세나뚜스(단장 단장 박기탁 사도요한, 담당사제 최홍길 레오 신부)는 대구지역 레지오 마리애 도입 50주년 기념 신앙대회를 지난 6월 6일(수)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구가톨릭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성대히 개최했다. 대구대교구장 최영수 대주교와 총대리 조환길 주교, 대구 세나뚜스 담당사제 최홍길

신부와 교구 레지오 마리애 단원을 비롯한 2만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1부 ‘그리스도와 함께, 성모님과 함께’, 제2부 – 장엄미사(‘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신심미사’), 제3부 ‘하나되는 어울림의 자리’로 단원들의 화합과 일치를 위한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1부는 화려하고 장엄한 입장식에 이어 교황 대사 에밀 폴 체릭 대주교, 전재옥 베네딕토

헌하는 순서가 진행됐다.

이날 장엄미사 강론을 통해 조환길 주교는 “레지오 마리애 50주년은 교구 설정 100주년을 향한 전진의 계기”라고 전제하고 “성모님의 마음으로 활동하고 기도하는 사랑과 열정의 레지오를 이루자”고 당부했다.

영성체 후 기도를 바친 후에 교구장 표창 시상식이 있었는데 근속상(50년 이상)은 석전성당 하귀분 아가다, 태전성당 이태출 제올지아, 범물성당 김순영 클라라와 이경환 마리아 데 레사, 삼덕성당 김태순 마리아 왈불가, 수성성당 박근애 마리아 요안나, 공로상은 대봉성당 오상준 사도요한, 효목성당 이영출 베드로, 영천성당 한용규 베드로, 선교상은 도원성당 이명숙 율리안나, 상인성당 전옥손 말가리다, 계산성당 문효순 마리아로 12명이 영광스러운 상을 받았다.

3부에는 가톨릭국악예술단의 사물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오고무 등의 민속공연과 가톨릭 전례예술단의 공연이 있었다. 특별히 지난 4월 15일 열린 레지오 단가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대봉성당 합창단의 성가합창과 삼덕성당 어르신 대학의 어르신 레지오를 중심으로 한 80여명의 성극 ‘하양의 혼인잔치’는 큰 호평을 받았다. 담당사제 표창 시상식에는 근속상, 공로상, 선교상, 특별상, 사이버상 등으로 모두 126명의 단원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 대구 레지오 마리애 도입 50주년 기념 신앙대회 자료집 발간

대구 세나뚜스는 6월 23일 신앙대회 준비위원회 재상봉의 날에 맞추어 ‘대구 레지오 마리애



▲ 1부 행사 진행 모습



▲ 2부 장엄미사

광주 세나뚜스 단장과 팽종섭 그레고리오 서울 세나뚜스 단장의 축사, 그리고 조환길 주교의 격려사로 진행됐고, 2부에서는 대구대교구장 최영수 요한 대주교의 주례로 장엄미사가 봉헌되었는데, 미사 중 2004년 5월 23일 세나뚜스 승격 경축대회 때 교구장께서 약속한 묵주기도 2억단 봉헌증서를 김종후 다니엘 경산꼬미시움 단장이 교구장께 드리고 지난 1년간 단원들이 필사한 신·구약 성경과 교본을 봉

도입 50주년 기념 신앙대회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 책자는 336쪽에 이르는 분량으로 우선화보가 전면에 배치되어 6월 6일 신앙대회 화보가 20여 쪽에 걸쳐 상세히 소개되고 있다. 이어서 신앙대회 당일 행사진행상황이 1, 2, 3부로 나뉘어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

### 신앙대회 준비위원 재상봉의 날 행사 개최

대구 '의덕의 거울' 세나뚜스는 2007년 6월 23일(토) 오후 1시부터 삼덕성당 성전에서 대구 레지오 마리애 도입 50주년 신앙대회 준비 위원 재상봉의 날 행사를 성대히 개최했다. 이 날 참석자들은 1시간 10분여에 걸쳐 신앙대회 영상기록물 감상 등의 순서를 함께 했다.

### ME 한국협의회

#### 한국 ME, 3,000번째 ME부부 배출

한국ME협의회(대표팀 이윤식 휴고·조윤숙 안젤라 부부, 담당사제 김웅태 요셉 신부)는 올해 도입 3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10일(일)은 한국에

서 ME주말이 도입된 후 3천 번째로 ME주말을 갖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았다. 전국에서 매월 실시되는 ME주말이지만 이번 3천차 주말의 주인공은 마산ME협의회 116차 주말이 이에 해당되는 영광을 누렸다.

이날 한국ME협의회 상임위원들과 함께 경남 산청군 지리산 반천계곡에 자리한 마산교구 지리산 연수원을 찾아 3천차 주말 기념 및 환영식에 임했다. 이 자리에는 마산교구장 안명옥 프란치스코 주교가 참석해 더욱 영광된 자리가 됐다.

안명옥 주교는 행사 끝까지 참석해 주말을 체험한 본당 ME가족들과 기념사진촬영에 일일이 응해 주고 환영식에서 "한국ME 3천차 주말을 마산교구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린다"며 기뻐하기도 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천리 길을 마다않고 달려온 한국ME 대표팀과 상임위원, 그리고 서울과 안동, 대구, 부산, 전주ME협의회 대표부부들과 상임위원 부부들, 마산교구 ME가족 등 500여 명이 함께 해 자리를 더욱 빛낼 수 있었다.

### 동정

#### 서울평협 이윤자 부회장, 평화방송·평화신문 신문이사로 영전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부회장인 이윤자(루치아) 평화신문 국장이 지난 7월 1일자로 평화방송·평화신문 신문이사로 선임, 승진했다.



▲ 한국ME대표 이윤식 휴고·조윤숙 안젤라 부부 축하인사

이윤자 신문이사는 1976년 가톨릭 교회언론 일선기자로 출발해 31년간 오직 한길을 걸어오며 여성 평신도로서 교회발전에 이바지해왔다.

### 대구평협 이해도, 대구 세나뚜스 제3대 단장에



이해도(안젤로)씨가 지난 6월 24일 박기탁(사도요한)씨의 뒤를 이어 대구 세나뚜스 제 3대 단장으로 선출됐다. 이해도 신임단장은 신서성당 신자로서 그 동안 뻔례시디움 단장, 꾸리아 부단장 및 단장을 거쳐 1991년 보좌서기로 교구 레지아에서 봉사를 시작한 이래, 레지아 서기, 부단장에 이어 초대와 2대 세나뚜스 부단장을 지냈다.

### 한국평협·서울평협 이광호 도농협력분과 위원장, 녹색에너지 우수기업 대상 수상



한국평협과 서울평협 도농 협력분과위원장인 이광호(펠릭스) 이투스텍 대표이사가 지난 3월 22일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이 선정한 녹색에너지 우수기업 대상을 수상했다. (주)이투스텍의 배관세척기술은 화학약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시공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 〈교황님의 가르침〉

#### 2007년 7월 1일 연중 제3주일 교황 베네딕토 16세 삼종기도 강론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번 주일 미사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멋진 주제에 대해 묵상하라고 권합니다. 그것은 “자유와 그리스도를 따름”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루카 복음 사가는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차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루카 9, 51)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히셨다”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님의 자유를 직감으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분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죽음의 십자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바치십니다. 바로 이처럼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사랑에서 우러나온 의식적인 선택으로서 자신의 자유를 실현하십니다. 전능한 분이신 그분보다 누가 더 자유롭겠습니까? 그러나 그 분께서는 제멋대로하거나 이웃을 지배하는 그러한 자유의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것을 이웃을 섬김으로써 사셨습



니다. 이렇게 하여 그 분께서는 자유에 내용을 “채우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자유란 무엇인가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공허한” 가능성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삶 자체처럼 자유는 사랑에서 의미를 끌어냅니다. 과연 누가 더 자유롭겠습니까?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잊게 될까봐 혼자 간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웃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굳혀’ 자신을 바치고 그리하여 자신이 주고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다시 가득 차게 되는 사람입니까?

바오로 사도는 오늘 날 터키에 있는 갈라티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자유를 육을 위하는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갈라 5, 13). 육에 따라 사는 것은 인간 본성의 이기적 경향을 따르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성령에 따라 사는 것은 지향과 행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사랑이 이끄는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적 자유는 결코 제멋대로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희생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바침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당신 사랑의 대단원을 사랑의 최고봉인 십자가 위에서 마무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칼바리아에서 그 분께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라고 외쳐댔을 때, 그 분께서는 바로 그 형틀에 그대로 남아 아버지의 자비로운 뜻을 끝까지 이행함으로써 아들로서 당신의 자유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체험은 다른 많은 진리의 증인들이, 곧 감방에서 고문 위협을 받으면서도 자유로웠던 것을 보여 준 사람들이 함께 한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어떠한 권력에도 노예가 되지 않고 언제나 자유로이 형제자매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미천한 종이신 동정녀께서는 티 없이 순결하고 죄에 물들지 않고 온전히 거룩하시며 하느님과 이웃을 섬기는 데 헌신한 분이시므로 완전히 자유로운 영적인 사람의 모델이십니다. 그분께서 자모적 배려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고 진리를 알아 사랑으로 자유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 교황청 신앙교리성

### ‘교회에 대한 교리의 일부 측면에 관한 몇 가지 물음에 대한 답변’ 발표

지난 6월 29일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교회에 대한 교리의 일부 측면에 관한 몇 가지 물음들에 대한 답변’과 이 문헌에 대한 해설을 발표했다.

이 문헌은 가톨릭 신자들이 교회의 본질이란 무엇인가를 더욱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하게 될 가시적이고 하나 된 사회로 교회를 세우셨다. 가톨릭 신자들은 이 하나인 그리스도 교회가 오로지 가톨릭교회에만 온전히 존재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인 교회가 정교회들과 개신교 공동체들에도 이들의 신도들의 구원을 위해 존재하여 활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들 그리스도교 단체들에도 교회 일치를 위한 대화를 촉진시키고 일치를 더욱 더 바라게 하는 진리와 성화의 진정한 요소들이 있다. 이 문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이것이 가톨릭 신자들로 하여금 교회 일치 상대방과 더욱 깊이 있고 솔직한 대화를 해 나가도록 이끌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문헌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교황과 가톨릭교회 지도자들이 대화에 대해 진지한 자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이 문헌의 대상과 내용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과잉 반응이다. 우선, 이 문헌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주교들과 가톨릭 학자들이지 우리의 교회 일치 대화 상대들이 아니다. 그리고 이 문헌은 가톨릭교회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해 벌여온 노력을 중 그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는다.

한편 이 문헌은 대화 당사자들이 상대방의 교리 전통에 바탕을 둔 주장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더욱 실질적인 대화를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러시아 정교회의 키릴 수좌 대주교 같은 이는 이 문헌은 솔직하며 교회 일치 대화에 있어서 곤란한 문제들은 비켜가는 외교적 접근보다 더 바람직한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기도 하다.

이 문헌에 대한 반응은 이렇게 엇갈린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문헌은 장

기적으로 진정한 교회 일치를 위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문헌이 왜 지금 필요한가? ‘주님이신 예수님’ (Dominus Iesus) 문헌이 나온 지 7년이 지났지만 교회에 관한 가톨릭의 교리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일부 신학자들은 어쩌면 다른 교회들과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에서 작용하는 하느님의 구원 사업을 강조하려고 하는 가운데 오로지 가톨릭교회만이 하나인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지 못했던 것이다. 다른 교회들과 공동체들에도 그리스도께서 혼존하시지만 오직 가톨릭교회에만 하나인 교회가 온전히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집단이 ‘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가에 대해 이 문헌이 제시하고 있는 입장도 귀에 거슬릴 수 있다. 정교회들은 교회로 불리기에 합당하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사들을 보존해 왔고 사도적 전승을 통해 존재하는 직무 사제직을 보존해 왔기 때문이다. 개신교 공동체들은 교회를 이루는 본질적 요소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가 되게 하는 성사들과 직무 사제직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정교회도 신앙과 실천면에서 우리와 매우 가깝기는 하지만 그들의 친교는 여전히 결함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베드로의 직, 곧 교황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문헌은 근본적으로 어떤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문헌은 가톨릭교회의 입장을 재천명함으로써 교회 일치 대화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대화 테이블에 가져가는 가톨릭의 ‘은사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도록 해 주고 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교회 일치 운동은 의견 교환이라기보다 은사 교환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성찬 중심적 예배, 주교 직무, 그리고 교황 수위권이 바로 이러한 독특한 가톨릭의 은사들이다. 이러한 은사들은 테이블 아래 숨겨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한편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확실하게 교회 일치를 지지하고 추진하시는 분이시다. 그 분은 학자로서, 신앙교리성 장관으로서 그러하셨고 현재는 교황으로서 그러한 분이시다. 그러나 교황님께서는 또한 ‘일치’는 신학적 명석함이나 외교적 기술을 통해 이루어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신다. 일치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알맞은 일을 하면서 기다려야 할 그러한 것이다.

한홍순(한국평협 회장)

## 제2회 우리성가 노랫말 공모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우리성가 노랫말을 공모합니다.

우리 정서에 잘 어울리는 성가의 창작과 육성으로 신자들이 하느님과 더욱 일치하도록 하며, 전례의 토착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우리성가 노랫말 공모에 역량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응모기간 : 2007년 7월 ~ 10월 31일

◆ 노랫말 소재 : ① 성체성체의 나눔과 희생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내용  
② 성경과 전례서를 근거로 하며, 신앙적 영감을 키울 수 있는 것

③ 일정한 운율을 갖추어 작곡하기 쉬우며 2~3절까지 부를 수 있는 길이

◆ 응모자격 : 제한 없음

◆ 시상 : 최우수상 1명 / 상패와 상금 100만원  
우수상 2명 / 상패와 상금 50만원  
장려상 3명 / 상패와 상금 30만원

◆ 선정된 노랫말을 바탕으로 창작곡 공모를 갖게 되며, 당선작은 내년 서울대교구 성가합창제 때 지정곡으로 연주됩니다.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00-809) 서울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호

☎ 777-2013 757-7851 / FAX 778-7427

Homepage: <http://www.clak.or.kr> E-mail: clak@catholic.or.kr

## 2007년도(제24회) 가톨릭대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숨어 있는 가톨릭대상의 주인공을 찾아주십시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2007년도 가톨릭대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한국평협은 세상 속에서 삶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묵히 실천해온 숨은 인사를 찾아 ▲사랑 ▲정의평화 ▲문화 부문으로 나누어 가톨릭대상을 시상해오고 있습니다.

1982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시상하고 있는 가톨릭대상은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인 복음적 활동으로 현세질서에 이바지한 모범적 시민에게 시상함으로써 인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며, ‘작은 그리스도’, ‘숨은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데에 뜻이 있습니다.

가톨릭대상은 가톨릭 신자에 국한하지 않고 종교와 종파를 초월하고 신앙에 관계없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숨어있는 작은 그리스도를 찾아 우리 삶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실천과 정의평화, 문화 창달에 노력해온 평신도와 일반 시민들 중에서 널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사랑 · 정의평화 · 문화 3개 부문
- ◎ 대상 : 종파를 초월한 55세 이상으로 개인 및 단체(사도직 단체 제외)
- ◎ 추천방식 : 소정의 추천양식 또는 일반적인 추천양식
- ◎ 마감 : 2007년 10월 31일
- ◎ 시상일 : 2007년 12월중
- ◎ 상금 : 사랑 · 정의평화 · 문화 각 부문 대상 300만원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00-809) 서울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호

☎ 777-2013 757-7851 727-2513 / FAX 778-7427

Homepage: <http://www.clak.or.kr> E-mail: clak@catholic.or.kr